

강희업 대광위원장, “주요 교통거점에 환승센터 확충할 것”

- 19일 오후 「제2차 환승혁신포럼」 주재

- 데이터 기반 환승체계 개선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

□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1월 19일 오후 용산(피스앤파크 컨벤션센터)에서 열린 「제2차 환승혁신포럼」에 참석했다.

○ 환승혁신포럼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교통·도시·정보통신기술(IT)·투자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,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.

○ 강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환승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,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.

□ 이번 포럼에서는 5년단위 환승센터 법정계획(‘26~’30)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 하는 방안, 환승 편의성 검토제도*의 실효성 향상, 그리고 각 기관에 분산**된 환승관련 데이터를 연계·통합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기관들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.

* (환승 편의성 검토제도) 신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도시권 환승역에 대한 환승편의 검토를 의무화 함 (광역교통법 개정(‘22.11)·시행(‘23.5))

** (분산현황) 교통카드社, 버스운송사업조합, 한국철도공사, SR, 지자체 등

□ 강 위원장은 “출퇴근 시간 30분 시대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오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환승 정책*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”하다고 강조했다.

* (예시) 교통·GIS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역사, 환승센터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진단하고 취약지구 발굴 및 개선

○ 특히, “주요 교통거점의 높은 환승 수요와 철도 지하화 등에 대응하여,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환승시간을 단축하고 환승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.”라고 밝혔다.

-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번 포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 환승 정책을 발굴하고, 주요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확충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승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2024. 11. 19.

국토교통부 대변인